

특별특리

김제시, 벼재배 모판용 상토 공급

김제시(시장 이견식)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시책 추진 평가에서 쌀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쌀안정 생산성확보 등 공로인정으로 장려상에 입상하여 전국 최고의 쌀로 인정받은 김제쌀을 세계 최고의 쌀로 만들기 위해 2016년 모판용 상토를 지원한다.

일년 농사의 시작인 못자리를 준비하는 농가들에게 경영비 절감과 함께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올해 23억 7500만원(시비 80%, 자부담 20%)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8,750ha에 모판용 상토를 공급할 계획이다.

모판용 상토는 김제시에 주소를 둔 벼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경작하는 모든 면적에 대해 지원하며, 직파 재배농가 및 타시군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은 "벼 영농일정에 맞추어 모판용 상토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서 이장 회의시, 마을방송을 통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못자리 설치를 앞두고 농촌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모판용 상토를 전 농가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경찰서, 치안설명회 개최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가 안접한 부안군 만들거리는 주제로 찾아가는 치안설명회가 10일 부안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현신 서장을 비롯하여 분서 각 과장, 서립 지구대장, 경찰관과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 마을 이장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부안경찰의 주요차량활동에 대한 추진방향 설명 및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강 서장은 부안은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 교통 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농번기를 맞이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 서장은 또 이번 치안설명회를 통해 부안주민의 안전과 행복은 부안경찰의 주어진 사명이며 주민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현장 중심 치안활동 전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에는 방곡천 생활안전과장 주제로 주민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면 마을이장단 등을 상대로 치안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안경찰서에서는 매월 2개 지역 총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치안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동진면, 지도자 역량 교육

부안군 동진면은 일선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이 10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장, 부녀회장, 생활개선회, 적십자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김인술 은생명령생교육원장이 '로하스와 잃어버린 생명의 밥상'이라는 주제로 질병의 원인과 사상제일 등에 대해 이뤄졌다.

김인술 원장은 "현대 첨단 의학에도 늘어나는 질병의 원인은 가장 기본적인 밥상 즉 자연적인 것에서 찾아야 한다"며 "훌륭한 후손을 출생시키려는 태교육이 교육 등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안 출신인 김인술 원장은 원광대학교 한문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현재 진안에 있는 은생명령생교육원에서 생명과 건강에 대해 연구하고 기업 및 관공서 등에 다수 출강해 호평을 받고 있다.

전종각 동진면 이장협의회장은 "이번 교육은 일선지도자들이 인문소양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유명강사를 초청해 소통과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세팍타크로는 동남 아시아 국가에서 인기 있는 구기 스포츠로 등나무 공을 사용, 네트를 사이에 두고 손을 사용하지 않고 발과 머리로 하는 배구와 축구의 혼합형 스포츠이다. 현재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유사한 스포츠로는 족구 등이 있다.

정읍시, 세팍타크로대회 개최

국민체육센터서 13일까지... 8개국 200여명 선수단 출전

지난 10일 막이 오른 제2회 아시아 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가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13일까지 4일간 열렸다.

아시아 세팍타크로 연맹이 주최하고 대한세팍타크로협회와 전북세팍타크로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등 세계 최강국 8개국 200여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10일 남자부 한국과 일본의 경기를 시작으로 12일 준결승이 이어지고 13일에는 결승전이 펼쳐진다. 결승전은

KBS N에서 중계할 예정이고 푸집한 경품도 마련돼 있다.

세팍타크로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 아시아 국가에서 인기 있는 구기 스포츠이다. 등나무 공을 사용, 네트 사이에 두고 손을 사용하지 않고 발과 머리로 하는 배구와 축구의 혼합형 스포츠이다. '세팍'은 말레이어에서 '차다'와 '타크로'는 태국어의 '공'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등나무 공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유사한 스포츠로는

족구 등이 있다. 김생기 시장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수준 높은 국제경기를 정읍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보다 많은 분들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세팍타크로의 저변 확대와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대회 개최를 위해 지난달 3일 제2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개최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보건소, 새학기 학교주변 식품위생환경 점검

26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93개 업소 단속

김제시보건소 위생업무 담당자들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식품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지도점검에 나섰다.

김제시보건소 위생계 위생업무 담당자와 어린이보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이루어진 점검반은 새학기를 맞아 건강한 학교 주변 식품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업주의 마음으로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부지런히 위생 지도점검중이다.

김제시는 관내 59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26개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

역을 지정하여 93개 업소에 대하여 수시 위생 지도점검중이며, 특히 새학기 맞이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식품 과자류, 화이트데이 대비 캔디류 및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진열·판매 ▷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정서저해식품 판매여부 ▷ 무허가·무표시제품 판매여부 등 위생 지도점검 중이며

3~4월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및 학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박재만 보건소장은 "다양한 연령의 영아들로 이루어진 어린이 보호식품 전담관리원과 위생업무 담당자들이 내 아이의 입에 들어가는 식품이니만큼, 그 누구보다 간간하고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겠다는 다짐으로 일하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주변 식품판매소 조성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김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관광홍보 힘써

서울 코엑스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김제시는 '내나라, 새로운 발견!'이라는 주제로 서울삼정동 코엑스에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열릴 2016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여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김제시는 벽골제와 금산사 등 주요 관광지와 대한민국의 대표축제인 지평선축제의 수도권 홍보를 위하여 10명 이상의 다녀갈 2016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전라북도 등 각 시군과 공동으로 참여해 홍보관을 운영했다.

김제시 홍보관에는 지평선물에서 지역 우수 농·특산품을 전시했으며 지평선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친환경 지평선 쌀로 만든 빵튀기와 누룽지 시식코너를 운영

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또한 김제시 관광두레사업단에서 손수 제작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관광객들에게 직접 체험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무농약 지평선쌀을 경품으로 제공해 지평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주식 문화홍보축제실장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수도권지역에 주민 주도적인 관광두레사업과 주요관광지홍보, 4년연속 대표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 지평선브랜드 우수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로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김자연구회는 태인면과 응동면 일대 50ha에 기공용 감자 '두백'과 '대서'를 재배해 kg 당 630원에 각각 납품하게 된다.

정읍시농기센터 감자재배 계약체결

판로 위해 원예농협과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달 오리온제과 계열회사인 신농상사(주)와 감자연구회, 원예농협과의 가공용 감자 재배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기술센터는 "농작물 수확기 심한 가격변동에 대응하고 안정적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읍김자연구회(대표 최강술)는 태인면과 응동면 일대 50ha에 기공용 감자 '두백'과 '대서'를 재배해 kg 당 630원에 각각 납품하게 된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가공업체와의

계약재배가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점차 계약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감자는 일반적으로 출하시기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고 과잉 생산 시 가격폭락이 큰 작물로, 이로 인해 계약 재배를 통한 안정 생산이 필요한 작목이다.

계약재배는 일반재배 보다 높은 소득창출은 물론 시기별 농작업 분산 등의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노동력 효율성 증진 등의 효과가 크다.

한편 기술센터는 이러한 장점에 주목, 지난 2011년부터 계약 재배를 추진해왔다.

/정읍=김대환 기자

A large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 cartoon bear mascot, and various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also lists prices for different gift se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angsanmyeongju.